

# 한국 축구 유니폼 디자인 변천에 관한 연구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을 중심으로-

조 영 아 · 손 영 미\*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Design of Korean Soccer Uniform -Based on national soccer player's uniform-

Young-Ah Cho · Young-Mi Shon\*

Instructor, Major in Fashion Design, Division of Design, Chosu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Major in Fashion Design, Division of Design, Chosun University\*  
(2002. 7. 29 루고)

###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design of Korean soccer player's uniform according to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changes in formative elements, and examine features inside them by considering designs of soccer player's uniform by ages ranging from the introduction of soccer up to now.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ed up below.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designs of soccer player's uniforms from 1920 to 2002 Korea-Japan WorldCup based on formative elements of the style of dress, ① it is shown that basic shape has been kept but changes in only color, cutting, trimming, logo and symbol have existed. ② Colors of the uniforms have been different according to ages but red, blue and white colors have been used most and sometimes black was employed, so it is known that colors in the Korean national emblem have been all used. ③ In the beginning of the uniform, there was a limitation in its design due to absence of functional materials but now highly-sensitive textile products and highly-functional textile materials guaranteeing optimal condition and highest activity of a soccer player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④ It is known that symbols modelling the image of Korea have been used in diverse ways but effected much by directions toward images pursued by designers of sponsors.

Second, the meanings represented by designs of the uniforms are classified into a degree of symbolizing Korea, tradition, superiority and dynamics. That is to say, ①as colors and symbols coming from the emblem have been used in the uniforms, they have symbolized one nation and possessed the

---

\* 교신저자

meaning representing even Korean national spirit. ②As traditional colouring and symbols have been used in the uniforms, they have shown the Korean sense of a beauty. ③ Colors, tones and designs overwhelming the mood of play have been used in the uniforms, so that they have played a role in making players of other team flinch mentally and making Korean players gain an advantage over them. ④ Thanks to strong symbols or comparative effects of colors, they have shown the dynamics representing power and energy.

Key Words : a degree of symbolizing Korea, tradition, superiority and dynamics

(상징성, 전통성, 우위성, 역동성)

## I. 서론

사회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스포츠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중 축구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경기의 하나로 단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주요 스포츠로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무엇보다도 지역,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약 2억 인구가 직접 발로 뛰며 즐기고 있고 상업적으로도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경기에서 선수들의 유니폼 디자인 및 기능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그 나라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된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 이러한 역할에는 열심히 뛰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단과 대표팀과 같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펼쳤던 '붉은 악마'가 있었다. 이렇게 국제 경기에서의 유니폼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한국 축구 유니폼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 근대식 축구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의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 경기용 유니폼 디자인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사회 발달에 따

른 디자인의 변천과 조형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고 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시대별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고 축구 박물관 방문을 통한 실증적 조사를 거쳤다.

본 연구는 시대적 가치관과 미의식을 이해하고 한국 축구 유니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

## II. 축구에 대한 일반적 고찰

발로 무엇인가 찬다는 행동은 인간의 본능적인 동작의 하나이기 때문에 축구와 유사한 행위, 또는 놀이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 이처럼 자연발생적 경기라 할 수 있는 축구의 발전과정을 먼저 고찰해 본다.

### 1. 축구의 기원

축구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개 B.C.6~7세기경 그리스 시대에 행해진 "Harpaston"이라는 게임에서 유래되었다.<sup>1)</sup>고 말하고 있다. 이 경기가 로마시대에 와서 무사들을 위한 군사적 훈련을 겸한 공놀이인 "Harpastum"이 되었고, 이것이 영국에 와서 정착하여 오늘날과 같은 근대 축구의 기원이 되었다고 영국축구협회 창설 90주년 기념

으로 발간된 『축구협회의 역사(The History of Foot ball Association)』에 기술되어 있다.<sup>2)</sup>

한국 축구에 대한 초기의 기록으로 1145년 金富軾의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上條에 “庚信 与太宗王蹴鞠, 因踐落太宗衣” 즉, 유신이 문무왕과 함께 ‘축국(蹴鞠)’을 하다가 문무왕의 옷끈을 밟아 떨어뜨렸다고 언급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축국을 가리켜 “농주(弄珠)의 희기(戲技)”라 하였는데 농주라는 이름으로 풀어 볼 때 일종의 구희(球戲)라고 볼 수 있으며, 옷끈이 떨어질 정도라면 신라 시대의 축구는 농주를 차고 빼앗고 하는 오늘날의 경기와 같이 맹렬한 운동이 아니었나 추측<sup>3)</sup>한다.

또한, 고려시대 一然의 三國遺事 太宗春秋기에 도 상기와 같은 내용의 글이 쓰여 있으며, 後漢書에 의하며 “고구려 사람은 바둑, 투호의 놀음을 좋아하고 축국에도 능하다”<sup>4)</sup>라는 기록이 있어 축구의 형태와 비슷한 놀이가 삼국시대부터 있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축구의 발전

축구가 규정을 갖춘 경기로 발전된 것은 1856년 영국에서 캠브리지 룰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부 지방에서 축구 클럽이 탄생되었고, 런던 근교에 산재한 클럽의 대표들이 모여 어느 때 어디에서 누구와도 함께 경기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여 1863년 풋볼 협회 (FA)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식 축구 탄생의 시작이다.<sup>5)</sup>

이러한 조직은 영국의 각 지역에서 결성되었고 축구의 보급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1900년 초까지 유럽각지에서 국가단위의 FA가 조직되었으며 1904년 6월 마침내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결성되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기에 이른다.

축구는 제 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되었고, 1920년 5월 26일 FIFA의 독자적인 축구대회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월드컵 축구대회가 탄생하였다. 올림픽 중간연도를 택해 4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는 FIFA 월드컵 제 1회 대회는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열린 제 3회(1938년) 대회 이후 12년 동안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0년 제 4회 대회가 브라질에서 다시 개최되어<sup>6)</sup> 오늘에 이른다.

한국에 서구의 근대 축구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82년(고종 19년) 6월 인천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 피쉬(Flying Fish)’호의 승무원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허가 없이 상륙하여 제물포 부두에서 불을 차며 휴식을 취하던 그들은 군졸에게 쫓겨갔고 이때 영국군이 두고 간 불을 아이들이 주워다가 훔내 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sup>7)</sup>

1895년 갑오경장 이후 근대식 스포츠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1904년 관립 외국어학교에서 축구를 체육의 한 종목을 채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축구경기는 1906년 3월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삼선평에서 가진 경기로 기록되어 있다.<sup>8)</sup>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 하에 경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경기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1921년 제 1회 전(全)조선 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1928년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로 축구인 조직인 ‘조선심판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어 5년 뒤인 1933년 9월 19일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됨으로써 한국에 정식으로 축구가 조직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제 말기 조선축구협회는 강제로 해산되었고 해방과 함께 1948년 9월 4일 대한축구협회로 개칭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같은 해 FIFA에 가입했고 1954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1948년 제 14회 런던 올림픽 본선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무대에 첫발을 내딛은 한국 축구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성장·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 축구는 1956년과 1960년 제 1, 2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아시안컵)에서 연속 우승하였고, 1960년대 이후 메르데카컵, 킹스컵, 아시안게임,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등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구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 축구 최강으로 불리게 되었다.

1971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축구대회인 '박대통령배 아시아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76년부터는 '박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1980년부터는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로 대회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지난 1995년부터 '코리아컵'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1983년 '수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최초의 프로 리그를 출범시켰고, 현재는 10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리그'라 불리고 있다. 한국축구 대표팀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5회 연속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4위를 차지하며 한국 축구의 뛰어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3. 축구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의 축구는 문화, 언어 등의 벽을 뛰어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개체이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국제 축구 경기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구촌 축제'로 국가간 문화교류를 넘어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축구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자 소통의 장으로 미디어의 발달과 상업적 마케팅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가치는 날로 증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은 국제 축구 경기나 월드컵을 통해 국력을 과시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과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거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 후 한국은 실제로 국가 인지도 및 이미지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함께 정보기술(IT) 강국, 동북아시아 허브국가로서의 면모를 널리 알렸으며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크게 각인시켰다.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 최근호에 실린 "멋진 한국(Cool Korea)"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불과 수년만에 IMF 관리체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외환보유고 1천1백24억 달러로 세계 4위를 자랑하면서 월드컵의 열기를 즐기는 개발도상국들의 모델로 그려지고 있다.<sup>9)</sup>

이는 수출에서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오늘날의 수출경쟁은 단순히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미지, 기업 브랜드, 문화적 부가가치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이자 경제학자인 '기 소르망'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하자 "한국이 겪는 위기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내세울 만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상품이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의 대외 인지도가 높아졌고 국가 이미지 역시 상당히 개선되어 수출 증대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21세기 지구촌은 기업 브랜드를 뛰어넘어 국가 브랜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디지털 휴대전화인 '노키아'는 브랜드의 뉘앙스 때문에 일본 제품으로 오인 받아 매출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sup>10)</sup> 이는 국가 브랜드의 영향력이 상품 브랜드를 뛰어넘은 사례이다.

현대의 축구는 경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가치 효과 또한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국제경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인지도 및 이미지 상승을 꾀하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력 강화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 III.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의 디자인 변천

처음 축구가 도입될 당시 선수들은 상투에 망건을 쓰고 조끼를 입은 한복차림이었고 일정한 규칙은 물론 골대도 없이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였다.<sup>11)</sup> 1910년을 전후로 많은 축구 단체가 조직되면서 저고리에 무릎 아래 길이의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었으며 목에 스카프를 둘러매어 팀을 구별하기도 하였다.<사진 1>

1921년 전조선축구대회에서 처음으로 축구 규정이 사용되었고 매년 열리는 대회에서 규칙이 보완되었다. 따라서, 한국 축구가 규모와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국가 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의 디자인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1> 황성기독교청년회팀과 대창구락부팀의 정렬모습(1909)

### 1. 1920~1940년대

축구열이 전국적으로 봄을 일으키며 확산되었고 1920년 7월 조선체육회의 결성과 전조선축구대회 개최 등으로 점차 기술과 전술이 보완되고, 규칙이 정비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룬다. 또한, 각종 구락부(俱樂部:클럽)가 축구 경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시기로 조선 축구단을 비롯하여 연희전문, 평양 축구단 등 단일 팀들의 해외원정 경기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sup>12)</sup>

#### 1) 구락부 축구

##### (1) 조선 축구단

1920년대 초 가장 강력한 축구팀의 하나였던 서울의 불교청년회팀이 뿌리가 되어 새로 탄생한 조선축구단은 창단되자마자 조선체육회 주최 제 6회 전조선축구대회의 첫 우승을 차지하고 이어 9월 평양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회 주최 제 6회 전조선 축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최강팀으로 자리잡았다. 때를 같이하여 1925년 일본 원정을 계획하고 8전 5승 3무라는 무패의 전적을 남기고 돌아왔으며 1928년과 1929년에는 2차례의 상해원정을 떠났다.

1930년대 들어 재정란이란 어려운 여건에서도 1933년 11월 제 14회 전조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고 이듬해 일본 및 중국 천진 원정을 감행한다. 이를 위해 경성, 평양의 선수들을 골고루 선발함으로써 조선의 대표팀이나 다름

이 없었다.

1935년 조선 축구단은 일본 대판(大阪) 마이니찌신문(毎日新聞) 지국 주최 제9회 전조선아식(式) 축구대회에 출전,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체된다.<sup>13)</sup>

조선 축구단은 국내 축구 발전에 크게 공헌했을 뿐 아니라 일본 및 중국의 상해, 천진 등지로 원정, 망국의 한을 축구를 통해 마음껏 발산하면서 한국 젊은이의 기개를 떨쳤다.

조선 축구단의 유니폼<사진 2>을 살펴보면 세로 블록 스트라이프(block stripe)의 타이트한 상의에 허벅지 중간쯤 오는 길이의 짧은 바지를 입고 무릎 길이의 단색 양말을 착용하고 있다. 상의 등근 네크라인 앞 중심에 트임을 주어 끈으로 여미도록 함으로써 네크라인의 크기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타이트한 상의를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바지 허리에 벨트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허리단이 있는 면소재의 신축성이 없는 바지로 추정된다. 사진 가운데 풀키퍼로 보이는 선수의 단색 상의에는 조선 축구단(Korean Foot Ball Club)의 영문 K가 새겨져 있어 다른 팀원들보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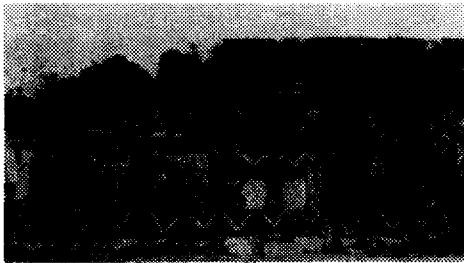
<사진 2> 조선축구단의 첫 상해원정(1927)

##### (2) 경성 축구단

1935년 일본 축구협회에서는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대표팀 강화를 목적으로 선수선발을 위한 제 1회 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1935년 6월 1일 도쿄 신궁외원구장(神宮外苑球場)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축구협회는 제 1회 조선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경성 축구단을 조선 대표로 선발하였다. 경성 축구단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일본 명치신궁경기대회에서도 패권을 차지하여 일본대회 2관왕이 되었다.

경성 축구단의 유니폼<사진 3>은 몸판에서 양 소매로 이어지는 V자 모양의 강렬한 패턴이 특징인 상의와 무릎 길이의 바지로 이루어져 있다. 목선 여밈 역시 끈으로 되어 있으며, 칼라가 있는 셔츠를 안에 덧입어 칼라가 네크라인 밖으로 나오도록 입고 있다. 조선 축구단에 비해 상의에 여유량이 더 있으며, 바지 길이가 길어졌으나 허리에는 여전히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우승컵 뒤편에 앉아 있는 골키퍼는 칼라 배색만 다른 디자인의 상의를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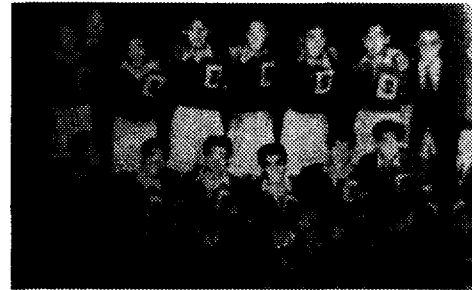
<사진 3> 제1회 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경성축구단(1935. 6)

### (3) 함흥축구단

1939년에 10월에 열린 제10회 일본 명치신궁경기대회 축구 일반부에는 함흥 축구단이 조선 대표로 출전하여 4년만에 패권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sup>14)</sup> 또한 1940년 11회 대회에서도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기세를 떨쳤다.

명치신궁대회에서 우승한 함흥 축구단의 모습<사진 4>을 보면 칼라(collar)와 언더-플래킷(under-placket) 그리고 소매단이 흰색으로 배색되어 있는 상의에 무릎 길이의 흰색 바지를 입고 있다. 반소매 상의의 앞여밈으로는 단추가 사용된 듯 보이며, 바지 허리부분에 벨트가 없고 주름이 잡힌 것으로 보아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왼쪽 가슴에 조선(朝鮮)이라 쓰인 엠블럼(emblem)을 부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조선의 대표팀임을 상징한다. 당시 함흥

축구단의 유니폼은 현대 축구 유니폼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4> 명치신궁경기대회 패권을 차지한 함흥축구단(1939)

### (4) 서울 축구단

광복 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두 나라의 축구 교류가 추진되었다.<sup>15)</sup> 요청을 받은 축구협회는 1946년 선수단을 구성하였고, 1947년 3월 최종 선발전을 거쳐 사실상 국내 최강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상해원정은 국가 대항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대표팀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서울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상해원정은 5전3승1무1패라는 좋은 전적을 남기고 귀국했다.

서울 축구단<사진 5>는 흰색의 칼라가 달린 브이 네크라인의 상의에 흰색 바지 그리고 가로줄 무늬의 니 삭스(knee socks)를 신었다. 상의 가슴선에 -자로 흰색 줄이 블로킹(blocking)되었으며, 바지 허리는 고무단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골키퍼



<사진 5> 해방 후 첫 중국상해원정에 나선 서울 축구단(1947. 4)

퍼의 상의는 무늬 없는 셔츠 칼라에 단추 여밈이다.

2) 런던 올림픽

1948년 제 14회 런던 올림픽 대회에 첫 출전하게된 한국 축구팀은 멕시코와 갖은 1차전에서 5 : 3으로 승리하였으나 2차전에서 스웨덴에게 0 : 12이라는 큰 점수 차로 무너졌다.

사진은 스웨덴과의 경기 모습으로 대표팀은 칼라가 달린 상의에 허벅지 중간정도 길이의 짧은 바지를 입고 가로줄이 있는 양말을 신었다. 플래킷에 단추가 달려있고 왼쪽 가슴에는 대한민국의 국기가 처음으로 부착되었다.<사진 6>



<사진 6> 런던 올림픽(1948)

2. 1950년대

1) 홍콩원정

1950년 홍콩원정을 떠난 한국 대표팀의 유니폼은, 상의의 칼라와 언더 플래킷 그리고 소매단이 흰색으로 배색되어 있으며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다. 앞여밈에 단추가 달려지 않은 대신에 플래킷의 너비가 넓고 소매단의 폭도 넓다. 런던 올림픽 유니폼과 반대로 하의의 색이 더 진하다.

2) 스위스 월드컵

1954년 제5회 스위스 월드컵 대회 첫 본선에 진출한 한국은 헝가리에게 9 : 0으로 패하고 이어 열린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7 : 0으로 패배하여 1차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계 무대에 첫선을 보인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회였다.

사진은 헝가리와의 경기에 출전한 대표팀으로 칼라와 언더 플래킷을 바지와 같은 색으로 배색한 유니폼을 입고 가슴 왼쪽에 태극기를 붙였다. 그러나, 골키퍼는 스탠드 칼라의 상의에 바지를 상의와 같은 진한 색으로 입고 무늬 없는 양말을 신었다.<사진 7>



<사진 7> 제5회 스위스월드컵대회-헝가리와의 경기출전(1954)

3) 제 1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제 1회 아시아축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였다. 당시 유니폼은 라운드 넥라인의 반팔 셔츠로, 가슴 왼쪽에 국기가 달린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3. 1960년대

1) 제 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회 우승으로 개최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 1960년 10월 14일 효창구장에서 제 2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회 2연패의 성과를 이루었다.

대표 선수단의 유니폼<사진 8>은 브이 넥라인의 상의에 태극기가 달려있는데, 일반 선수들은 가슴 왼쪽에 골키퍼들은 가슴 중앙에 국기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상·하의 색이 스트라이프로 교차 사용된 양말을 신고 있다.

2) 제 3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964년 제 3회 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목둘레선과 소매단을 흰색으로 배색한 브이 넥라인의 상의에 허벅지 중간정도 길이의 흰색 바지를 입고 가로 줄

록 스트라이프 양말을 신었다.

3) 동경 올림픽

1964년 제 18회 동경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유니폼<사진 9>은 제 1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시 입었던 유니폼과 흡사하다. 즉, 라운드 넥라인에 왼쪽 가슴에 국기를 단 단순한 디자인이다.



<사진 8>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후 기념촬영(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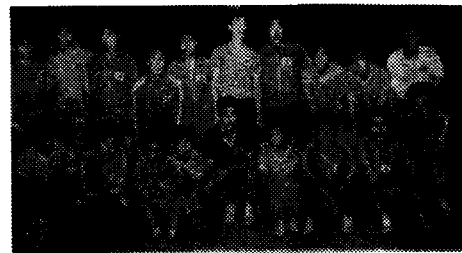
<사진 9> 동경올림픽(1964)

4. 1970년대

1) 제 6회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1970년 12월 9일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한국은 미얀마와 함께 공동 우승을 차지하였다. 당시 유니폼<사진 10>은 목둘레선과 소매단을 흰색으로 배색 처리한 브이 넥라인의 상의와 바지로 이루어졌다. 사진에서는 왼쪽 끝 두

번째 선수의 바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옆선에 백색의 파이핑이 대어져 있고 다리 왼쪽 배번 옆으로 허리단 아래서 시작되는 또 한줄의 파이핑이 보이는데 이것은 긴 바지의 트레이닝복으로 추정된다.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은 선수들도 있는데 앞 지퍼로 이루어진 상의에는 어깨선에서 소매로 이어지는 두줄의 흰선이 있고, 앞줄의 선수가 입은 진한 색 긴 바지 옆선에도 두줄의 선이 보인다.



<사진 10> 제6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대표팀(1970)

2) 뮌헨 월드컵

1973년 뮌헨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한 대표팀의 유니폼은 브이 넥라인의 상의에 짧은 바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키퍼의 상의는 좁은 라운드 넥라인이다.<사진 11>



<사진 11> 뮌헨월드컵 예선전(1973)

3) 제 20회 메르데카배 대회

1976년 8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초청대회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메르데카배 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은, 가슴 왼쪽에 태극기를 단 브이 넥라인의 단색 상의와 흰색의 바지를 착용하였다.



4) 아르헨티나 월드컵

1978년 개최된 제 11회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 출전한 대표선수들은 어깨부터 소매선, 그리고 바지 옆선에 백색의 삼선을 두른 유니폼을 입고 있다. 또한 라운드 넥라인의 상의 목둘레와 소매단 역시 백색으로 배색되어 있으며 가슴 왼쪽에는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다. 신발에도 삼선 테이프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아디다스'의 후원 받지 않았나 추정된다.<사진 12>



<사진 12> 제11회 아르헨티나월드컵 예선대회(1977)

가슴에는 후원사인 위크엔드(에스에스 스포츠)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바지 왼쪽에는 배변이 새겨져 있으며 오른쪽 바지 아래에는 상의보다 작게 위크엔드 로고가 달려있다. 골키퍼는 요크(york) 부분이 검정색으로 배색된 칼라가 달린 노란 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검정 양말을 신고 있다.<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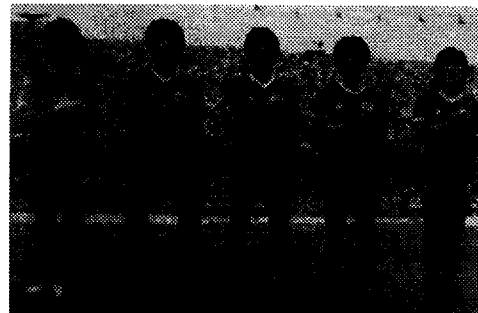


<사진 13> 스페인월드컵 1차 예선 결승전(1981) 월드컵 70년 편찬위원회 편저 (2001). Worldcup 70년. 서울: 한국일보, p. 125.

5. 1980년대

1) 스페인 월드컵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앞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1차 예선전에 출전한 한국팀은 백색의 선을 두른 브이 넥라인에 칼라가 달려있고 어깨에서 소매선, 바지 옆선으로 이어지는 백색의 삼선이 있는 아디다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 라글란(raglan) 슬리브의 이음선에 또한 백색 파이핑을 들렀으면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를, 오른쪽 가슴에는 후원사인 아디다스의 로고를 처음으로 부착하였다.<사진 13>



<사진 14> 멕시코월드컵 예선전(1985) 대한축구협회. 앞의 책, p. 110.

2) 멕시코 월드컵

1986년 제 13회 멕시코월드컵에서 한국팀은 32년만에 본선 진출을 이루었다. 사진은 1985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에 참가한 한국 대표 선수들로 상·하의와 니·삭스 모두 붉은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 브이 넥라인과 소매단에는 흰색의 선을 들렸으며, 상의 왼쪽 가슴에는 국기가 오른쪽

3) 아시아경기대회

1986년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 월드컵 당시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였으며, 첫 단독 우승을 차지하였다.

### 6. 1990년대~현재

#### 1) 이탈리아 월드컵

1990년 아시아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팀은 빨강과 파랑 두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브이 네크라인과 소매단은 각각 적·백·적 또는 청·백·청(청색 유니폼인 경우에는 가는 청색의 줄 사이에 굵은 백색의 줄이 있는 식)으로 배색된 밴드가 달려 있고, 상의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가, 오른쪽 가슴과 왼쪽 소매 그리고 바지 오른쪽 아래와 양말의 바깥쪽 중심에는 라피도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다. 바지 양 옆선에 짧은 트임(slit)이 들어가 있으며 바지 왼쪽 아래의 배번은 이전에 비해 그 크기가 커졌다.<사진 15>



<사진 15> 이탈리아월드컵 예선(1989)

#### 2)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고전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지역 예선을 통과하여 3회 연속 본선 진출을 달성한 대표팀은 2무 1패라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의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대표팀의 유니폼은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전 진출이 확정된 후 바뀌었다.

##### (1) 아시아지역 예선전

같은 디자인의 빨강색 또는 파랑색의 유니폼을 입었다. 목둘레에 파랑·빨강·흰색이 배색된 밴드가 앞 중심에서 교차된 듯 둘러져있고 어깨부터 소매선 사이에 흰색, 파랑 또는 빨강, 흰색 순으로

짧은 선(직사각형 모양)의 3패가 부착되어 있다. 상의 앞 중심에 처음으로 배번이 나타났으며, 바지 오른쪽 아래에도 배번이 보인다.<사진 16>



<사진 16> 미국월드컵 아시아 예선(1993)

##### (2)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전/월드컵 본선전

빨강, 파랑, 흰색의 유니폼이 사용되었으며 색동 사선 스트라이프 문양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그리고 바지 왼편과 양말에 나타난다. 역시 앞 중심과 바지 오른쪽 아래에 배번이 보이고 바지 옆선에 트임이 있다. 또한, 라피도의 로고와 국기도 부착되어 있다.<사진 17>



<사진 17> 미국월드컵 본선(1994)

3) 애틀랜타 올림픽 · 프랑스 월드컵 예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1997년에 열린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붉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었다. 상의는 브이 넥라인에 검정색 칼라가 달리고 목선에서 내려오는 검정 선이 있으며, 소매단에도 바지와 같은 검정색 선이 배색되어 있다. 또한, 백색과 청색의 물결무늬가 앞·뒤판에 프린트되어 있으며,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가 오른쪽 가슴에는 후원사인 나이키의 로고가 붙어 있다. 바지 밑단에 상의의 빨강색이 배색되어 있으며, 오른쪽 아래 붉은 배번은 상의 중앙의 것과 같은 형태이다. 골키퍼의 복장을 보면 라운드 넥라인의 검정 상의에 같은 색 하의를 입고 있다. 상의 앞 중심에 위·아래로 흐르는 노란색 물결 무늬가 있으며 나이키의 로고도 노란색으로 수놓아져 있다.<사진 18>



<사진 18> 프랑스월드컵 도쿄 1차전(1997)

4) 프랑스 월드컵 본선

대표팀은 칼라와 소매단이 청색으로 배색되고 소매를 돌아 뒤판으로 이어지는 적색과 백색의 파이핑이 있는 브이 넥라인의 붉은색 상의를 입었다. 여기에 넓은 폭의 적색 블로킹과 뒤쪽으로 백색의 파이핑이 있는 청색 하의를 조합했다. 그러나, 원정 경기 시에는 백색의 칼라와 소매단이 달린 청색 상의에 백색의 하의를 입었다. 골키퍼는 목둘레가 검정색으로 배색된 라운드 넥라인의 노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었고 소매 부분에 백색과 흑색의 파이핑이 둘러져 있다.<사진 19>



<사진 19> 프랑스월드컵 본선 E조 첫 경기(1998. 6)

5) 한 · 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는 보다 밝은 색상의 2점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핫 레드(Hot Red)의 상의에는 같은 색의 칼라가 달렸으며, 앞판과 이어지는 라글란 선에는 삼각형의 문양이 그리고 옆구리에서 겨드랑이 밑을 돌아 나오는 Y자 형의 흰색 문양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점선으로 표현된 곡선의 반복 문양이 있다. 또한, 왼쪽 가슴에는 축구협회의 엠블럼인 호랑이 문양이 부착되었고 오른쪽 가슴에는 후원사인 나이키의 로고가 있으며, 기존의 태극마크는 오른쪽 소매 윗부분으로 옮겨졌다. 바지는 데님 블루(Denim Blue)색으로 옆선에 흰색의 파이핑이 있으며 오른쪽 앞쪽에는 축구협회 엠블럼이 원편에는 배번과 나이키의 로고가 달려 있다. 원정 경기 유니폼은 같은 디자인의 백색 상의와 핫 레드의 하의로 이루어졌다. 골키퍼의 유니폼은 목둘레 선을 검정으로 배색 처리한 라운드 넥라인의 노란색 상의와 검정 하의로 되어 있다. 선수들은 상의의 색과 같은 니 삭스를 신었으며 양말의 앞 중심에는 나이키의 로고가 수놓아져 있다.<사진 20>



<사진 20> 한·일 월드컵 한국대표 선수단 유니폼(2002. 6)  
<http://worldcup.websolus.co.kr/2002/korea/team/Uniform.html>

#### IV. 축구 유니폼 디자인 분석 및 특성

##### 1.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디자인 분석

앞에서 살펴본 한국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 디자인을 스타일, 색채, 소재, 문양의 조형 요소로 분석해 본다.

##### 1) 스타일

상의와 반바지형의 하의 그리고 양말로 구성된 기본 형태는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왔으며, 칼라(collar)나 재단(cutting)의 방법, 트리밍(trimming)이나 로고(logo), 심볼 마크(symbol mark)등에 의한 스타일의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다.

1945년 해방 전까지는 활동하던 국내 팀이 대표로 해외원정을 떠나 경기를 했으므로 유니폼은 각 팀의 특성이나 개성대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일제 침략기였으므로 국가를 상징하는 것 자체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1939년과 1940년 2회 연속 일본 명치신 공경기대회에서 패권을 차지한 함흥 축구단은 이례적으로 朝鮮(조선)이라고 쓴 마크를 왼쪽 가슴에 붙였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바로 직전에 참가한 런던 올림픽부터 태극기가 왼쪽 가슴에 붙기 시작했다.

1950년대는 흰색의 칼라가 달린 상의가 입혀졌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칼라 없이 라운드나 브이 네크라인의 단순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표 1>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스타일 분석

연대 스타일	1920~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2년
네 크 라인								
엠블럼	조선(朝鮮) (좌측가슴) ↓ 태극기 (좌측가슴)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대한 축구협회 (좌측가슴 바지우측) + 태극기 (우측소매)
후원사 로고	×	×	×	×	아디다스 (우측가슴) ↓ 위크엔드 (우측가슴, 바지우측)	라피도 (우측가슴, 좌 측소매, 바지우측, 양말중심)	나이키 (우측가슴, 양말중심)	나이키 (우측가슴, 바지좌측, 양말중심)
배번 (뒷판 제외)	×	×	×	×	바지좌측	바지좌측 ↓ 상의중앙 + 바지우측	상의중앙 + 바지우측	상의중앙 + 바지좌측

1977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전에 처음으로 '아디다스'의 삼선이 들어간 유니폼이 입혀졌으나 후원사의 로고는 부착되지 않았으며,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예선전에서 입은 상의 가슴 오른쪽에 처음으로 후원사인 아디다스의 로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유니폼의 오른쪽 가슴에는 항상 후원사의 로고가 부착되었다. 1985년과 1986년에는 '위크엔드'의 후원을 받았으며 1994년 미국월드컵까지는 '라피도' 그리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는 '나이키'의 공식 후원을 받았다.

1985년 위크엔드사가 후원한 유니폼 바지 원편 아래에 처음으로 선수 배번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1994년 미국 월드컵 예선전부터 입기 시작한 유니폼의 상의 앞 중심과 바지 오른쪽 아래에 배번이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브이 넥라인에 칼라가 붙거나 또는 배색을 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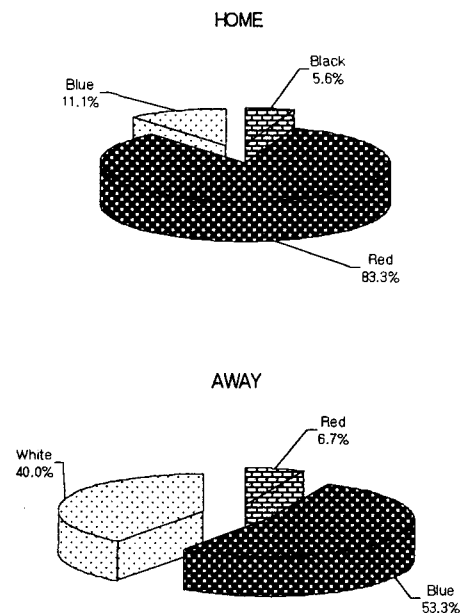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항상 가슴 왼쪽에 붙어 있던 태극기가 오른쪽 소매로 이동하면서 크기가 작아졌고 대신 축구협회의 엠블럼이 등장하였다. 이는 월드컵 대표팀을 국가 대표팀이 아닌 FIFA 회원국 협회 대표로 간주하는 국제 사회의 관례 때문이다.

2) 색채

대표팀 유니폼의 색상은 1982년 스페인 예선전 전까지의 자료가 대부분 흑백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1940년대까지는 백색의 바지를 계속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로는 1954년과 1964년, 그리고 1976-77년에 입었으며, 다시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경기부터 프랑스 월드컵까지의 원정 경기 시 백색의 바지가 착용되었다.

1985년 위크엔드사가 후원을 맡기 시작하면서 상·하의 모두 붉은색 유니폼이 사용되었고, 라피도 역시 붉은색 상·하의 또는 푸른색과 흰색의 상하동색 유니폼을 사용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는 붉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가 사용되었고 본선 경기에서는 붉



은색 상의에 청색 하의 또는 청색에 백색 바지가 사용되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붉은색과 청색이 사용되었으나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 산뜻함을 살렸다. 즉, 붉은색(하트 레드: 64H)은 기존의 무거운 느낌을 없애고 파란색(데님 블루: 45S)은 채도를 낮

<표 2>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색채 분석

연도	1986 (멕시코W)		1990 (이탈리아W)		1994 (미국W)			1996 (아틀랜타O)		1998 (프랑스W)		2002 (한·일W)	
	Home	Home	Away	Home	Away	White	Home	Home	Away	Home	Away		
상의	Red	Red	Blue	Red	Blue	White	Red	Red	Blue	Red	White		
하의	Red	Red	Blue	Red	Blue	White	Black	Blue	White	Blue	Red		
양말	Red	Red	Blue	Red	Blue	White	Red	Red	Blue	Red	White		

취 상의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도록 디자인 되었다. 또한 원정 경기 유니폼도 백색(10A) 상의와 핫 레드 하의로 바뀌었다.

폴키퍼의 유니폼은 홈 경기 시 노란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는 회색이나 검정색 상의에 검정 하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유니폼의 색채는 시대에 따라 같은 색상이라도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적색과 청색 그리고 백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검정색도 보여 태극기의 색상이 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 3) 소재

초기의 유니폼은 기능성 소재의 부재로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나 면·폴리에스테르의 혼방 소재를 많이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신축성 좋은 스트레치사의 개발과 1960년대 초 스판덱스 섬유(16)을 시작으로 고감성 섬유제품과 고기능성 섬유 재료가 유니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용 유니폼에서는 주로 신축성과 통기성, 흡수흡한성, 방습성, 건조성 등이 고려된다.<sup>17)</sup>

1980년대 워크엔드에서 후원한 대표 선수단의 유니폼 상의는 굵은 매쉬(mesh) 소재로 이루어져 통기성이 좋고 가볍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위한 라피도의 유니폼 상의는 같은 색의 실을 사용하였으나 줄무늬 부분과 바탕 부분을 다른 조직으로 짠 우븐 스트라이프(woven stripe)가 사용되어 단순한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매끄럽고 약간의 광택이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본선전에서는 코튼 피케(cotton piqué)라 불리는 형태가 안정되고 땀 흡수가 잘되는 직물소재가 쓰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은 '쿨 모션(Cool Motion)'이란 개념 하에 최적의 컨디션과 최상의 활동성을 보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체온상승과 땀이 주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고안됐다. 폴리에스테르(86%)와 폴리우레탄(14%)의 걸감과 매쉬(폴리에스테르 100%)로 된 안감으로 이루어진 유니폼은 최초로 2중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그 무게가 상·하의 합쳐 319g에 불과하며 특수 마이크

로 섬유 소재를 써서 별도의 속옷을 입지 않아도 땀 흡수와 건조를 동시에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기존 유니폼에 비해 땀 흡수량이 20g 줄어들고 땀을 흡수한 유니폼의 무게는 12%나 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 기능도 걸을 때보다 쉴 때 2배 이상 더 효과가 있다.<sup>18)</sup> 또한, 문양 부분과 상의 밑단 그리고 하의 뒤편 상단에는 걸감으로도 매쉬를 사용함으로써 6월 한국과 일본의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 4) 문양

1940년대까지는 세로나 가로 스트라이프 또는 V자 형태 블로킹이 나타났으며 한동안 문양이 등장하지 않다가 1977년과 1982년 아디다스의 스폰서를 받으면서 대표적인 삼선이 유니폼에도 등장했고, 1994년 미국 월드컵 예선부터 다채로운 문양들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 월드컵 본선에서는 색동 문양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지는 사선 문양이<sup>19)</sup> 화려하게 프린트되어 있는데, 다른 출전국들의 유니폼에도 빗살 모양이나 번개, 스트라이프 사선 등의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당시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흰색과 파란색의 물결 문양이 앞·뒤판에 프린트된 유니폼을 입었으나 문양으로 인해 배번이 잘 보이지 않는다<sup>20)</sup>는 FIFA측의 지적으로, 본선에서는 문양 없이 소매와 등 쪽으로 이어지는 파이핑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끝이 뾰족하게 끝나는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의 문양이 상의 양옆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겨드랑이 밑을 등글게 돌아나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고, 중앙에는 한국적인 곡선을 살린 반복 문양을 텍스처 효과처럼 배치함으로써 강인함 속에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한·일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의 디자인 책임자인 버글라스씨는 "한국팀의 팀웍과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sup>21)</sup>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라질, 미국, 러시아 등의 유니폼에서도 비슷한 문양을 볼 수 있어 후원 국가의 유니폼을 단일화하려는

<표 3>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상·하의 색상관계 및 패턴 분석

	1920~ 1940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2년
색 상	상하이색	상하이색	상하이색	상하이색	상하동색	상하동색	상하이색	상하이색
패 턴	스트라이프V자, -자 블로킹	×	×	아디다스삼선	아디다스 삼선	3괘 문양· 색동사선	물결문양 배색 파이핑	곡선문양 텍스처효과

의도가 보이며, 후원사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이미지의 방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유니폼에서의 양말은 편물 조직의 니 삭스가 초기부터 계속 착용되었으며, 색채와 문양의 변화가 주로 나타난다. 대체로 가로 스트라이프와 무지가 많이 보이며 유니폼 상·하의 색상이 양말에도 반복 사용되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준다. 색채의 배색 없이 단순한 유니폼 디자인이 주를 이뤘던 1960년대에는 가로 스트라이프 문양의 양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일반 선수용 유니폼의 색상이 상하동색이었던 워크엔드와 라피도 후원 유니폼에서는 양말도 같은 색상을 보이나, 상하이색을 보였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는 상의의 색과 동일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후원사의 로고가 부착되면서 양말의 양옆 솔기나 앞 중심에 로고가 나타난다.

국가 대표 선수단의 축구화는 1960년 이전에는 오늘날의 보통 운동화처럼 평평한 바닥의 신발이었다. 그러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팀이 신었던 징(stud)이 달린 아디다스 축구화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 대표팀도 1960년 제 2회 아시아 축구대회 때부터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기 시작했다. 아디다스사의 창업주인 아디다슬라가 설계한 새로운 축구화는, 축구 선수의 움직임이 빠른 방향전환과 순간 스피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해 신발 밑창에 육상 선수들의 스파이크처럼 징을 박았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 축구화는 이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징은 축구화의 필수품이자 상징이 됐다.

그리하여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까지 검정 표면에 흰색의 삼선이 있는 아디다스의 축구화가 사용되었다. 초기에 징은 앞측에 4개 뒤측에 2개로

모두 6개로 제작됐으나, 갈수록 축구 선수들의 동작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징의 위치와 개수, 모양 등이 개선됐다. 선수들은 수제화의 경우 자신의 발 버릇에 따라 징의 위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는 검정색의 아시스 신발을, 그리고 나이키의 후원을 받으면서부터 나이키의 신발을 착용하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착용한 축구화는 인체 공학적 설계를 채용한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Mercurial Vapor)'로 명명된 신형으로 '나이키 스킨(Nike Skin)'이라는 첨단 가죽 소재와 폴리우레탄을 사용해 무척 가벼우며(196g) 볼 터치 감각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sup>22)</sup> 두께가 3mm에 지나지 않는 나이키 스킨은 발의 굴곡에 꼭 맞도록 제작돼 착용감도 좋다. 나이키는 또 '나이키 스냅(Snap)'이라는 고유의 기술을 응용해 축구화 바닥의 스티드 교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인조가죽 표면에는 폴리우레탄 코팅처리를 해 공이 닿을 때의 감촉이 발에 잘 전달되도록 했다. 징 끝을 스텐레스 스틸로 처리해서 더욱 견고하게 하고 미끄럼을 방지했으며, 징과 스파이크 부착면이 양옆으로 넓게 퍼지도록 해 지면의 충격을 바닥판 전체로 분산되도록 했다. 농구화의 에어 붐을 일으켰던 줌 에어기술을 바닥 안창에 채용해서 쿠션은 물론 징의 압력을 분산하도록 설계<sup>23)</sup>한 것이 특징이다.

2. 축구 유니폼 디자인에 표현된 특성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특히, 디자인의 색채나 문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국가 상징성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의 유니폼에는 국가를 나타내는 국가가 응용되어 국가의 대표, 국민의 대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각적으로 쉽게 상징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색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팀 유니폼에는 적색과 청색 그리고 백색이 주로 사용되어 왔고, 2002년 월드컵에서도 붉은색 상의와 푸른색 하의 그리고 흰색 상의와 붉은색 하의의 조화를 보여 주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태극기에서 분출된 색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이 국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21>

반면 일본은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의 유니폼에 일장기의 붉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울트라 닛폰'이라는 젊은 열기를 상징하는 푸른색 상의와 흰색 하의로 구성함으로써 국가의 상징성에서는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유니폼 디자인에 표현된 국가 상징성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발적인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내면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 전통성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에는 전통색이나 문양 등이 사용되어 우리민족 고유의 미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색상에 있어 특히 적색과 청색 그리고 백색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간 애호한 색상이다. 먼저 백색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색상으로, 깨끗하고 물들지 않은 결백하고 순결한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의 발로<sup>24)</sup>이자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표상한다. 적색은 존귀(尊貴)와 양(陽)을 의미하고, 청색은 희망과 음(陰)을 나타내는 음양론에 기인한 전통적인 색깔이다.

유니폼에 보여진 다양한 문양들은 색동이나 태극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때로는 반복적인 직선문양으로 때로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곡선에 있어 자연스럽게 편안한 선을 선호하는 전통미가 표현되었다. 따라서, 유니폼 디자인에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루었고 생활문화 전반에서도 친숙하게 활용되어 우리의 감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형에 대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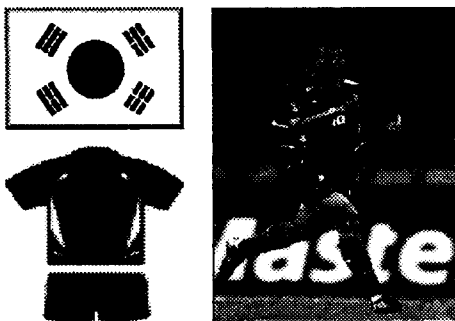
또한, 2002년 월드컵부터 부착되기 시작한 대한 축구협회의 엠블럼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민족과 친근한 '호랑이' 문양이 사용되어 한국 축구만의 전통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며, 유니폼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sup>25)</sup>하고 있다.

3) 심리적 우위성

경기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색상 톤이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역할을 말한다.

특히, 색상은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지각되는 요소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에 가장 많이 사용된 붉은색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와 포효하는 선수단의 기상을 대변하고 있다.

적색은 활성이 강하고 감정적인 일을 일으키는 동작을 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색으로 이러한 적색의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 예로, 한 미식축구 감독은 경기 전에 적색으로 칠해진 휴게실에서 선수들을 쉬게 함으로써 선수들의 투지를 고조시켜 유



<사진 21>국가 상징성  
<http://worldcup.websolus.co.kr/2002/korea/team/Uniform.html>



리한 시합을 이끌었다고 한다.<sup>26)</sup> 즉, 상대 선수로 하여금 긴장과 불안을 초래하고 선수 자신에게는 활력과 흥분, 경쾌함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가시성 높은 대담한 문양과 차별화된 기능성으로 경기를 주도하고자 하는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4) 역동성

선수단의 유니폼에는 블로킹<사진 5>이나 3패형의 문양<사진 16>과 같이 주목성이 높고 힘이 있는 디자인 외에도 기하학적 사선<사진 17>, 흐르는 듯한 물결무늬<사진 18> 등과 같이 반복과 연속의 관계를 갖는 문양이 사용되어 시선을 유도하고 표면에 활기와 울동감을 준다.

특히 한·일 월드컵에서는 삼각형이나 끝이 뾰족하게 끝나는 번개와 같은 강렬한 문양이 사용됨으로써<사진 20> 인간의 한계를 스포츠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비상의 의지가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간결한 실루엣과 단순한 색상에 리듬감이 넘치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조화롭게 구성함으로써 역동성을 창출해 내었다.

또한, 적색과 청색의 강한 색채 대비는 경쾌하고 활동적이며, 때로는 흰색과의 배색으로 개성적인 각각의 색채 특성은 더욱 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생생하고 유연한 운동감을 나타낸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 근대식 축구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의 축구 유니폼의 디자인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사회 발달에 따른 디자인의 변천과 조형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고 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20년대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의 축구 유니폼 디자인을 복식의 조형요소로 분석한 결과, ①기본 형태는 계속 이어지면서 칼라나 재단 방법 그리고 트리밍이나 로고, 심볼 마크 등에 의한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②유니폼의 색채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여졌으나 적색과 청색 그리고 백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점점색도 보여 태극기의 색상이 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③초

<표 4>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디자인에 표현된 특성

특성 조형요소	국가 상징성	전통성	심리적 우위성	역동성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鮮-상징 마크</li> <li>• 태극기 부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 가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의 간결화로 다른 요소 강조</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극기의 색상 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색 주로 사용</li> <li>• 색동의 색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색의 사용</li> <li>- 위협적인 느낌</li> <li>- 활력, 흥분, 경쾌함</li> <li>- 선수단의 기상 대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 대비 효과</li> <li>• 원색의 사용</li> <li>• 흰색과의 배색</li> <li>- 각각의 색채 특성을 살리는 생생한 표현</li> </ul>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극, 4패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럽게 편안한 곡선의 미 연출</li> <li>• 호랑이 문양</li> <li>- 전통성 및 강인함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성 높은 대담한 문양</li> <li>• 날카롭고 강렬한 패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목성이 높은 패턴</li> <li>- 블로킹(blocking)</li> <li>- 3패형</li> <li>• 반복·연속의 관계를 갖는 문양</li> <li>- 사선 스트라이프</li> <li>- 물결무늬</li> <li>• 비상의 의지 표현</li> <li>- 번개문양</li> </ul>

기에는 기능성 소재의 부재로 유니폼 디자인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최적의 컨디션과 최상의 활동성을 보장하는 고감성 섬유제품과 고기능성 섬유 재료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④한국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문양이 다채롭게 쓰여졌으나, 후원사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이미지의 방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 디자인에 표현된 특성은 국가 상징성, 전통성, 심리적 우위성, 역동성으로 분류되었다. 즉, ①국기에서 분출된 색상이나 문양이 사용되어 국가를 상징하고 있으며, 국민 통합을 유도하는 내면적 기능을 갖는다. ②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나 문양 등이 사용되어 한국적 미의식을 보여준다. ③경기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색상 톤이나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우위를 차지하는 역할을 한다. ④울동감 있는 패턴과 색채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생생하고 유연한 운동감을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유니폼은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를 위한 옷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상징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기 성과에 따라 그 유니폼이 가지는 상징성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좋은 디자인과 색감이 일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복장과 경기 모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미지로 남게 된다.

따라서, 국가 대표선수단 유니폼 디자인에는 한국적이면서 또한 세계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표팀의 유니폼은 해외 브랜드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등은 자국 브랜드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었으며, 그들의 활약을 통해 브랜드 및 국가 홍보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영국의 엄브로(Umbro)는 국가대표 축구팀과 전 세계 유명 축구 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업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축구화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상표 '키카(Kika)'가 있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잘 알려진 키카는 붉은 악마의

원조가 된 1983년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청소년대표팀이 이 축구화로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독일 경제일간지인 '한텔스블라트'에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즉, 국내 스포츠 브랜드의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고유의 미적 디자인 요소와 기능성이 조화된 스포츠웨어 개발과 축구에 대한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축구를 통한 마케팅 효과는 물론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고유의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 당당히 나서야 할 때다.

## 참고문헌

- 1) 김의목 (1982). 축구. 서울: 동양문화사. p. 11.
- 2) 이희상 (1977). 근대 축구. 서울: 형설출판사. p. 11.
- 3) 대한축구협회 (1986). 한국축구백년사. 서울: 대한축구협회. p. 136.
- 4) 대한체육회 (1970). 大韓體育會 50年. 서울: 대한체육회. p. 108.
- 5) 대한축구협회. 앞의 책. pp. 139-141.
- 6) <http://www.2002worldcupkorea.org/com>
- 7) 대한축구협회. 앞의 책. pp. 136-137.
- 8) 월드컵 70년 편찬위원회 편저 (2001). Worldcup 70년. 서울: 한국일보. p. 368.
- 9) 鄭慶源 (2002. 7. 9). '멋진 코리아와 디자인. 서울: 한국경제신문.
- 10) 金忠一 (2002. 7. 16). 서울: 중앙일보.
- 11) 이희상. 앞의 책. p. 18.
- 12) 대한축구협회. 앞의 책. p. 270.
- 13) 위의 책. pp. 189-193.
- 14) 위의 책. p. 264.
- 15) 위의 책. p. 287.
- 16) 김성련 (1981). 피복재료학. 서울: 교문사. pp. 177-180.
- 17) 송인향 (1984). 테니스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9.
- 18) <http://www.kospoz.com/ko20020220-22.htm>

- 19) 홍성진 (1995). 현대 스포츠 그래픽 패턴의 경향성 연구. 한양여자대학논문집, 18, p. 595.
- 20) <http://www.sportskorea.net>
- 21) <http://cinet.hk.co.kr>
- 22) <http://www.sportskorea.net>
- 23) <http://www.noise.pe.kr>
- 24)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59.
- 25) 박주희 (2001). 태극 이미지의 축구 유니폼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26) 하용득 (1992).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p. 120.